


# 공인중개사 시험

---

---

---

---



# 공인중개사 시험

문/2가  
제/한

- 평균 60점 ↑ 합격
- 객관식 100% (200문제)
- 1년 ①회 실시

공인중개사 시험은 주관식 없이 객관식 200문제로 출제되며, 평균 60점을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입니다. 1년에 한 번 시행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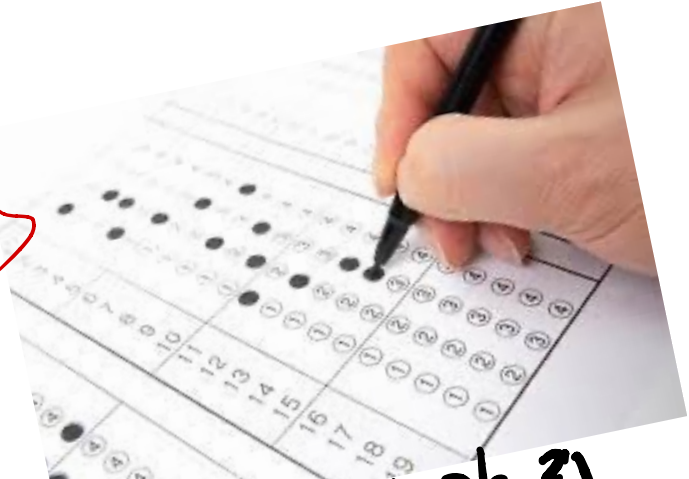
1차	1차	2차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모두 합격해야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1차 2과목, 2차 3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와 2차를 모두 합격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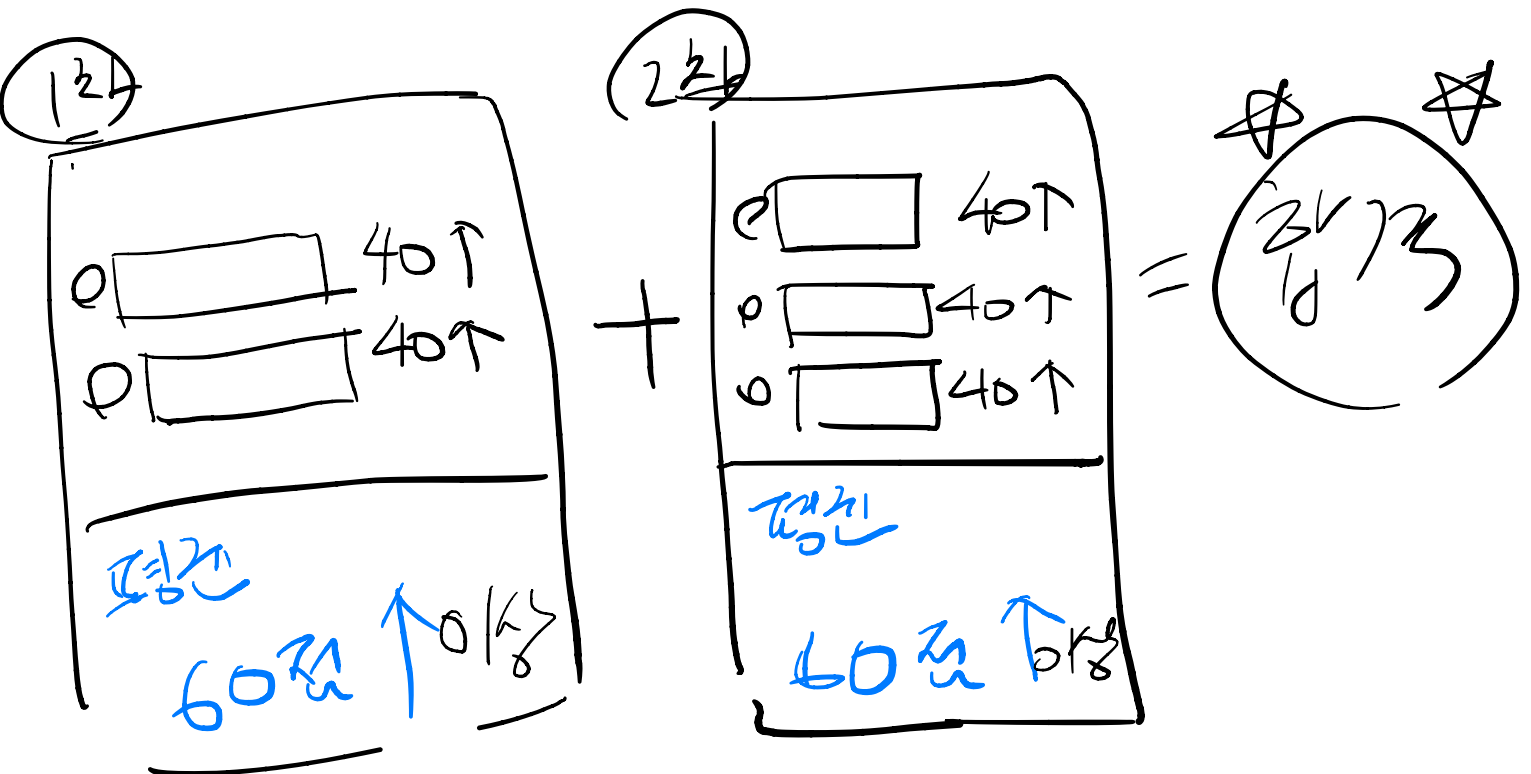
총 200 문제  
40 문제 x 5 과목

100%  
5지 선다 기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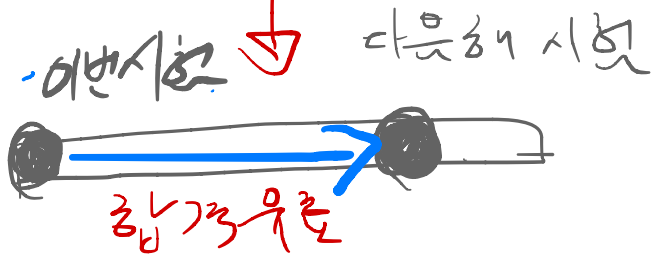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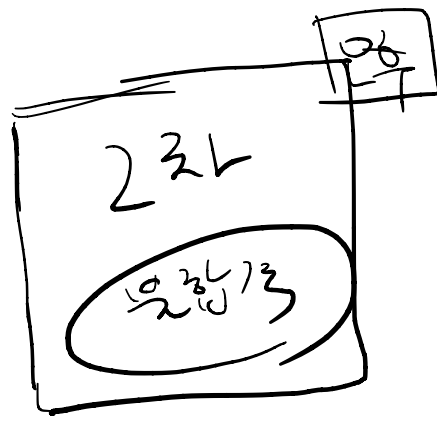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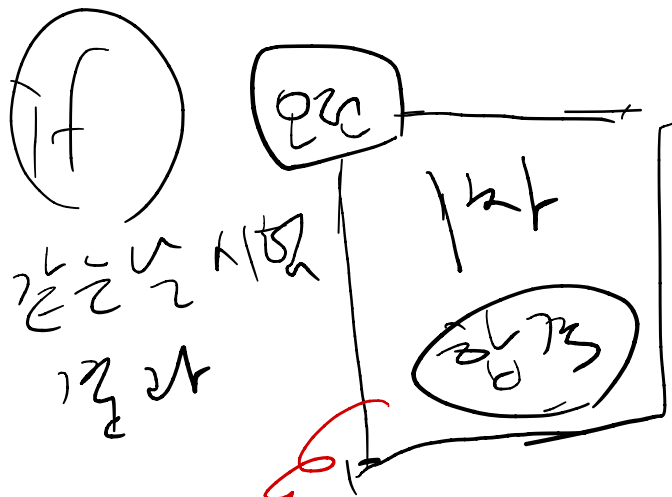


## OMR 카드 확인지

과목 당 40문제, 총 200문제가 출제됩니다. 모든 문제는 5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 하나를 선택하는 '5지 선다' 객관식입니다. 답안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카드에 작성하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채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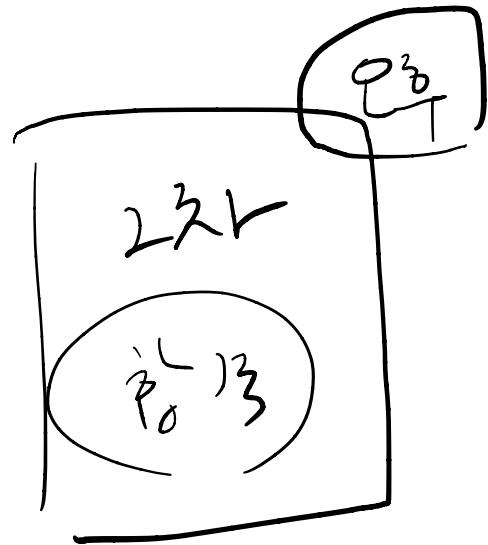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1차와 2차가 각각 평균 60점 이상 이면 합격입니다. 다만 과목 중 하나라도 40점을 넘지 못하면 '과락'으로 불합격하게 됩니다.



[다음해] 2차 합격  
자격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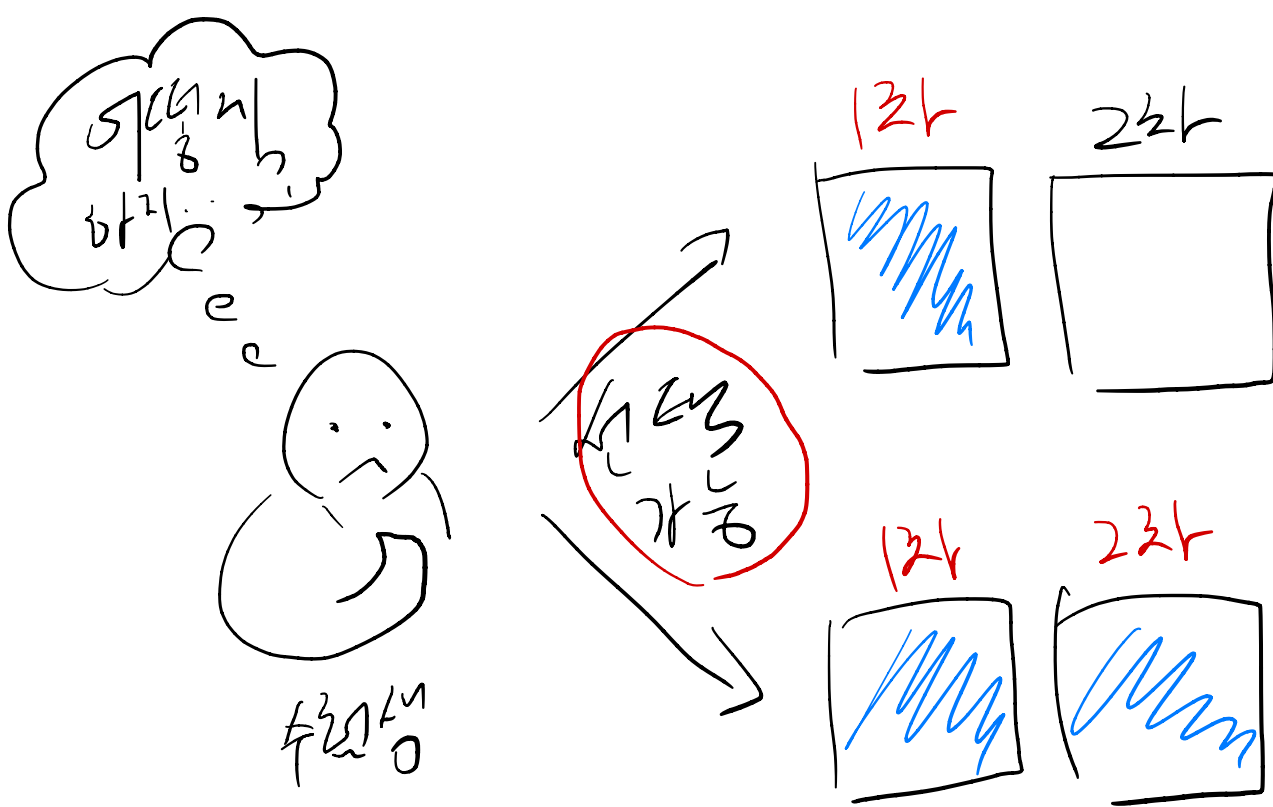
1차, 2차 시험을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1차만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진다면 다음 해에 2차 시험만 합격을 해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 시험은 1년 동안 합격 유효)



[다음해]

1차, 2차 모두 다시  
합격해야만  
자격 취득

그러나 만약 1차가 떨어진다면 같은 해에 2차를 합격 하더라도 다음 해에는 1차와 2차 모두를 다시 합격해야 합니다. 1차 시험은 무조건 합격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런 이유로 수험생에게는 시험 응시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1차와 2차를 한 해에 동시 응시할 수도 있고 (이걸 흔히 ‘동차’라고 말합니다.), 1차만 응시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1차 만을 준비하거나, 동차를 준비했다가도 시험이 다가올 때 쯤 2차 시험은 포기하고 1차에만 집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1년 시험일정

---

2021. 10.30 (토)  
원서접수: (2021) 8.9 ~ 8.13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Q-NET\)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접수가 익숙하지 않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해 인터넷 접수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도 가능한지는 전화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021년 (32회) 시험은 10월 30일에 실시합니다. (원서 접수 : 8.9 ~ 8.13)